

한국 현대건축의 기본방향

A basic course of Korea modern architecture

조영무
(工博, 中大 講師)

1. 조상의 숨결 - 고유한 실존성의 근원

우리 원시사회는 약 5천년전부터 문명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초기 공동사회를 관리하는 과정에 독특한 민속이 생겨나고, 그 바탕위에서 고유한 민속건축이 발전했다. 오늘날 까지 구전되어온 건축용어와 현존하는 민속건축유산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 구전용어는 한자로서도 표음하지 못했으며, 이 민속건축유산은 중국화되지 않은채 현존하고 있을뿐 아니라 거센 근대건축양식과도 독립하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 공간구성체계는 과거의 생활양식과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 구조양식은 인접국가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가집과 익공집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겨레의 개성을 강력하게 표현한 민속건축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전통의 주류이며, 기리 기려야할 고유한 실존성이다.

불행스럽게도 과거의 도목들은 건축법식을 기록해두지 않은 채 이미 유명을 달리 했다. 그들의 작품과 건축행위를

우리는 제대로 설명하기조차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슬기와 솜씨가 눈에 보이거나 마음으로써 느끼는 맛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귀솟음”과 “안솔림”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귀솟음이란 평기둥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귀기둥에 이르기까지 기둥높이를 점점 높히는 이른바 생기법을 뜻한다. 안솔림이란 정면과 측면의 열주들을 수직으로 세우는게 아니라 기둥높이 1척마다 몇리씩 안쪽으로 쏠리게 상향시키는 이른바 측각법을 뜻한다. 이런 용주제도가 목조가구 구조를 튼튼하고 짜마추면서 동시에 간수가 늘어남에 따라 커지는 수평착시와 수직착시를 교정하는 기법이었다. “안솔림” “귀솟음” 같은 말이 깨우쳐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며 자랑스러운가! 또 “명당”이 깨우쳐주는 이상도 어떠한가!

지금 당장 “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이처럼 귀중한 건축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설사 말이 존재하지 않아도 다른 존재형식으로서 조상의 슬기와 솜씨가 이 땅위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까맣게 잊어버린 오늘날,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기질이 또 하나의 우리의 실존성일지 모른다.

과거 제각기 집터를 우주의 중심처라고 믿었다. 오행설이 그러하다. 지금도 상양식때에 동·서·남·북·천지의 제신에게 공양을 하면서 그 집과 그 입주자의 부귀영화를 빈다. 대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길흉화복을 한가지로 꿈꾸었다. 이런 사상이 “명당”의 건축을 낳았다. 하여튼, 실용적인 측면에서 집터를 고를때부터 깊이 생각하며, 집과 마당, 더 나아가서 마을과 산수까지 총체적으로 통찰(secret investigation)하던 조상의 숨결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다.

2. 세계건축으로의 전환

눈에 보이거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민속건축의 실존성과 그 지문적 독창성은 매우 귀중하다. 산수가 굽이굽이 흐르는 우리 대지의 지문적 특성도 매우 귀중하다. 이것들이 한국건축의 중국화와 서양화를 막고 외래수객의 한계를 점지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또 다른 방향과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속에 살고 있다. 동서양의 모든 나라에서도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백년전의 건축세계나 천년전의 건축세계로 되돌아 갈수 없을 것이다. 건축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설사 되돌아간다손 쳐도, 과거의 건축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하고 구속적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사회에 사는 기분을 느낄것이다. 건축은 절대성과 상대성의 양면을 소유한다. 시대나 문화전통에 따라 요구 충족과 질은 변화한다. 우리 시대가 문명사회에서 문명후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지 못하는 변화의 다이너미즘이다.

현재 건축의 발전단위는 국가나 문화의 단위가 아니다. 이 지구상에는, 국가나 문화를 초월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세계건축이 있다. 이것은 근대 국제건축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향이다. 양식을 초월하여 인류가 다 같이 동참하여 추구하는 이상상의 추구이다. 지식과 정보, 이미지와 비존, 그리고 건축교육까지도 교류하고 있다. 한국의 건축기반도 바야흐로 세계건축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고유의 실존성과 그 지문적 독창성을 간직한 채, 우리는 세계건축으로서의 한국건축이란 새로운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3. 건축기반의 꿈틀거림

유사이후, 우리 건축기반은 세가지 주요 전통요소의 충격을 받고 세차레 크게 꿈틀거리면서 전진하였다 (그림 1) :

- (가) 제 1 전통요소(약 5 천년간) : 민속건축 ;
- (나) 제 2 전통요소(약 10여세기간) : 서북아제국의 동양건축 ;
- (다) 제 3 전통요소(약 1 세기간) : 구미제국의 서양건축.

장기간에 걸쳐서 서북아제국의 동양건축양식을 수용한 민속건축은 주로 궁원, 객사, 묘사, 관아, 학원, 병영, 불사, 능원 등 일부 공공건축을 다양화시켰다. 구조양식의 측면에서, 주상포작양식(주심포)과 보조포작양식(다포)이 그러하지만, 우리 포작제도는 결코 중국식과 같지 않으며, 특히 부계병전의 루실구조는 거의 대부분 짝수층에서 반칸 물린 뜬처마기둥을 세운 특이한 비례형태를 채용했다. 외래 동양건축의 영조법식이 정립된 다음에도, 그것을 완전하게 채용한 실례가 극히 드물다. 어떤 분이 “소화불량상태”에서 수용했다고 평하지만, 나는 “특이하게 소화”했다고 반론을 펴고 싶다. 그 나름대로 기능-구조-형태의 특이한 총체표현을 완성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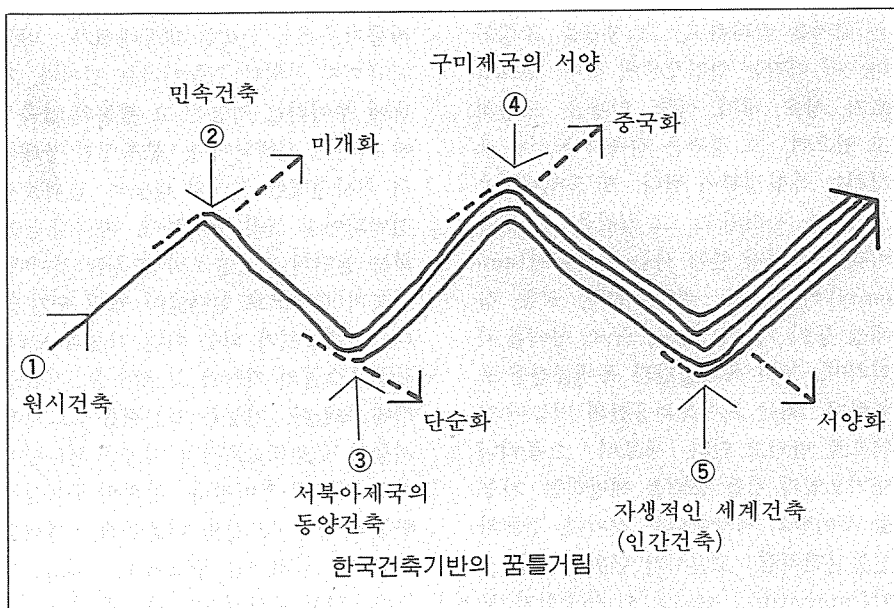
구미제국의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실학이 싹텄다. 다산 정약용이 “정도형 이상도시안”을 제안했고, 김정호가 “대동지지”를 탈고했다. 그 무렵의 “화성” 신읍의 경영은 역사적 발전의 차이를 보여준다. 구한말에 이르러 비로소 사농공상의 사민제도가 폐기되고, 동시에 신분에 따라 건축의 간수, 치수, 재료, 구조를 제한하여 규제하던 주거조례가 폐기되었다. 구한말의 건축사회에서 목재

가 가장 적절한 재료인가? 뭔가 새로운 건축을 피할 시점에 도달했을 때였다. 이 무렵 개관과 개시와 더불어 구미제국 고전건축양식과 뒤이어 1930년대에 근대기능주의건축양식이 국내에 들어닥쳤다. 처음에는 외국인에 의하여 고전양식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구한말 탁지부와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주로 공공건축분야와 상공건축분야에 고전양식을 도입했다. 1934년에야 비로소 고 박길용께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고대석 조본관을 설계했다. 2 차대전 당시 서울 시내의 초가집의 지붕개량이 행하여졌다. 석조와 벽돌조에 이어 부력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가 보급되었다. 건축 수요가 급증한 6.25동란이후 그야말로 국내전역에 기능주의 건축이 보급되었다. 초기 근대건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완전한 연구가 결여된 채였다. 도시계획의 구상과 유도없이, 무질서한 건축행위는 질의 저하와 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

과연 초기 근대건축(1917~1927) 그 자체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어떻게 수정당했는가? 1930년대에 이미 풍토적인 지방주의 경향이 생겼다. 서양의 1930년대의 상황과 한국의 1950년대의 상황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 것인가? 이미 1958년을 전후하여 구미제국은 제각기 현대건축시대로 들어섰다.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자. 비록 약 1세기간 내지 약 반세기간에 불과했지만, 또 하나의 외래건축이 우리의 고유한 실존성과 그 독창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만큼 승리했는가? 남다르게 우리가 느껴야 하는 이원적인 현존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남다르게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원적인 분열의식이 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와 “남”, “우리의 것”과 “남의 것”이란 대립의식을 강하게 조성시켜 주고 있다.

우리 건축기반속에는 실제로 온갖 동서양의 건축전통이 들어와 도사리고 있다. 무엇이 남의 것이고, 무엇이 나의





것이나? 어디까지가 남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것인가? 분명히 가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건축 내부생활의 기본구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건축의 존재의미와 건축행위간의 대응관계를 다시 발견함으로써 진정한 건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시할 수 없는 실존적 표현법과 새로 생겨난 표현법 가운데에서 주된 것이 있을 것이고, 이 주된 것이 그 밖의 것들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는 새로운 환경상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시대에는 새 환경상이 표현된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새 환경상을 생각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가? 어떤 사고의 형태적인 설계가 강요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자생적인 사고가 또다시 우리의 건축기반을 크게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선 동서양의 온갖 전통양식을 초월해야 한다. 이것은 근대적인 전통거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는 새로운 전통의 진화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제공하는 온갖 가능성들을 채용하는 것이다.

4. 건축의 외적여건

한국 현대건축의 방향을 어느정도 예견한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발전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어떤 새로운 재료와 구조공법이 새로이 나타나서 우리 건축을 지배할 것인지도 예견하기 어렵다. 또 어떤 사회개혁이 생겨나서 어떤 건축개발을 강요할지도 모른다(초기 근대건축 시대가 그러하였다). 분명히 오늘의 건축가가 생각하고 처리하는 건축기능들이 부분적인 것이거나 불완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실존적인 건축기능이 현실속에 다시 나타나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공간속에 합체할지도 모른다. 이런 역할 때문에 미처 예견할 수 없던 문화적선택을 하여 합체

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앞서 환경상의 경우처럼, 건축은 단계적인 해결보다도 도시계획적인 해결, 더 나아가서 조정적인 해결(landscape - architecture)이 아니면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예측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 토지의 사유권이 인정되면서 건축의 자유권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도시계획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다. 건축의 구체성은 점적인 존재인 동시에 그 성격이나 지각형태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확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정상적인 사용이 항상 공해를 발생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도시 시가지 안에서는 건축의 사회적 의의와 그 존재형식이 문제되고 있다. 지구계획 제도와 도시설계지구제도가 그러하다. 각종 제도로서 참다운 건축의 사회적 형식을 되살리려고 꾀한다. 어느 만큼 예외적인 자유가 허용될는지 아직 미지수이다. 앞으로 조경이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에 개입할지도 모른다.

건축, 도시계획, 조경은 현재 환경의 물리적 개발과 직접 관련하는 것들이다. 거시적인 면에서, 이 삼자간의 유기적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경은 대지를 관리하고, 그 경관을 조성한다. 이 대지는 인간생존에 절대 필요한 토지, 상수, 대기, 식물, 일광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경관은 건축과 도시를 포함하는 복합경관이 된다. 또 도시계획은 시가지를 관리하고, 그 경관을 조성한다. 이것은 시가지 안에 사는 아메니티(amenity)와 즐거움, 취업, 위락, 교통, 경제성 등이 가능한 규모, 구조, 형태를 관리하며, 도시 옥외공간과 옥내공간을 포함한다. 최근 도시옥외공간의 기능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새로이 소음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공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부여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건물의 인동간격처럼, 고밀시가 단위들간에 격역(interstitial space)이 등장할지 모

른다. 일련의 격역이 시가단위들을 연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군도형 불연속 구조가 그러하다. 그리고 건축이 인간생활에 절대 필요한 옥내공간을 관리한다. 건축이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고밀시가단위를 단일복합건축으로 처리하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이 도시 안에 위치하고, 도시는 대지안에 위치한다. 좁은 국토의 이용이 각종 시가단위와 각종 도시척도의 건축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속에서 건축의 사회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예견가능한 장래의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건축의 사회성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5. 바람직한 건축행위 유형

건축은 단지 외부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건축은 인간생존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옥내생활활동공간을 온갖 수단을 이용하여 구체화한다. 무엇을 어느만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인간이 결정한다. 이것은 인간과 사회의 생존 및 생활활동들과 구체적인 생활공간 간의 대응관계이다. 무한한 활동을 모두 다 대응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일부 활동만을 전제로 한다. 무한한 소망과 활동가운데서 선택한 대응매체가 바로 지금까지 정의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건축에 부여하는 기능은 그 활동의 영속성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취사선택한 하나의 해답의 결과로서 선택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간화는 일단의 기능들로서 농축한 것이며, 기능적 수축으로 말미암아 커질 수가 없다. 선행동기가 되는 이런 기능과 달리, 구조요소들의 기능과 그 성능은 기술공학에 속한다. 기능은 인간활동으로서의 기능과 구조요소로서의 기능은 건축단계별로 다르게 쓰여진다. 건축의 구체성은 활동과 공간구조간의 대응관계, 형태를 표현하는 물리적인 구조체계, 그리고 그 공간성격이 확산하면서 주위에 들어내는

지각구조에 의하여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건축적인 조화는 인간의 전문성과 개성 그리고 영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영감은 소망과 계시가 만나는 데에서 비롯하는 감정이다. 소망은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태동하는 것이며, 계시는 완벽한 존재의 의미를 암시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영감이 의미를 창조한 것이 형상이다. 형상은 아무런 실제적 존재가 없는 것이며, 마음 속에 실존하고 있다. 형상이야말로 디자인의 방향을 지시하는 선착자이다. 착상한 것, 구상한 것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디자인은 마음속에 실존하는 형상의 상태로부터 기본조형언어를 구사하여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인 존재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기본조형언어 구사의 숙달을 전제로 한다. 창조수단으로서의 디자인은 기능과 형태 그리고 미를 동시에 총합 처리하는 개념일 수도 있으며,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디자인한다” 또는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착상이 형을 끄집어내는 가장 귀중한 순간이 처음 기획할 적에 떠오른 최초의 영감의 계시이다.

계시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에 속한 형을 암시한다. 창조한 것은 영감에 소속한다. 건축에 있어서, 구조는

형상을 만들어 내고, 건축은 공간속에 소망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조화로써 만들어낸 것은, 자연의 조화와 달리, 유전인자와 자위조정능력을 갖지 못하며, 그 성능이 기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럴수록 더욱 자연의 유기성과 공존성으로부터 조형의 수수께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건축가는 주어진 과제를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학적 접근방법이다. 건축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예술적이고 조형적인 방법 이외에도 새로이 과학적인 방법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며, 공동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도 또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 요구는 장차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요구 자체에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며, 현재 정의한 것들 가운데에도 어지간히 결함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확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결국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축행위는 다분히 귀납하는 것이 아니라 연석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관찰-연역-

발견-관찰을 끝없이 되풀이 하면서 이 상상에 접근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접근방법에서도, 건축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축의 상대성은 그 여건들과 그 변화에서 연유한다. 경제적 조건에 적합하도록 나라마다 달라질 것이고, 경제적 조건과 더불어 문화전통이나 지문적특성에 따라서 시대마다 달라질 것이다. 앞서 논한 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사례마다 특이한 표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것이 기계적으로 건축을 결정짓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그것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건축행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 (가) 첫째 유형이 발견을 앞세우는 절대적인 건축행위이고;
- (나) 둘째 유형이 관찰을 앞세우고 발견하는 전통적인 건축행위이고;
- (다) 셋째 유형이 관찰을 통한 연석을 앞세우고 발견하는 총체적인 건축행위이다.

셋째 유형인 총체적인 건축행위 유형을 바람직한 건축행위로서 받아들이고 세계건축의 전제로 삼아야겠다.

大韓建築學會 事務所 移轉

대한건축학회 사무국사무실을 6월 7일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건물 4층 406·408호실 (국민원앞 과학기술회관내 지하철
강남역 하차) 전화번호: 553-4715·4716

낭비없는 알뜰피서 가족끼리 오손도손